

CAST

냉전극장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사진/글 박찬경

Black Box: Memory of the Cold War Images

Photography/text by Park Chan-Kyong

‘간첩’과 ‘스파이’는 같은 뜻을 가졌지만, 어감은 전혀 다르다. ‘스파이’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뭔가 매력적인 존재로, ‘간첩’은 현실에서 사회 불안을 획책하는 불순분자로 흔히 생각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간첩-스파이’의 현실일까?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진실에 가깝다고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냉전 자체가 하나의 ‘극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학, 노래, 영화, 뉴스, 사진으로 이루어진 세계였고, 세계이다. 인류학자 권헌익은 북한을 ‘극장국가’라는 말로 요약했다. 극장은 전경(前景)이고 이데올로기는 그 배경인 것이 아니다. 전경 자체가 정권이기도, 이념이기도, 생활이기도 한 국가가 북한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냉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박찬경이 주로 기억의 장치를 통해 ‘냉전극장’을 말한다면, 정운석은 냉전 레토릭의 ‘재사용’을 통해 원래 냉전이 극장이었음을 밝힌다. 박해천은 이 극장에서 활약하는 플레이어들의 복잡한 연출의도를 훑어 나간다. 이 글들을 통해 한 번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말이 가능한지, 혹은 얼마나 적게 이야기되었는지.

/ 박찬경, 미디어시티서울2014 예술감독

CAST는 Art가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특정 주제를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지면이다. 그 첫 코너는 박찬경과 미디어시티서울2014.

미디어시티서울2014는 ‘귀신 간첩 할머니’를 주제로, 9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등지에서 열린다. ‘냉전극장’은 ‘간첩’이라는 전시 주제를 텍스트로 확장시킨 기획이다. 분단현실을 하나의 극장으로 상정하고, 세 필자가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쓴다.

/ 아트인컬처

이 책자는 박찬경 개인 전시 일부로 제작된 것입니다. 총 160장으로 된 슬라이드 사진 중 40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글

❶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 박찬경 ❷ 밤섬해적단, 붉은 깃발을 들어라! / 정운석 ❸ 간첩에서 사머니즘까지 / 박해천

윤홍길의 소설 〈장마〉를 각색해 유현목 감독이 1979년 발표한 동명의 영화 〈장마〉 스틸컷 / 이전 페이지 · 1969년 6월 흑산도 간접 살해 사건의 기념사진. 박찬경의 개인전 도록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에서 발췌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

/ 박 찬 경

1979년 6월 흑산도 간접 살해 사건의 기념사진. 박찬경의 개인전 도록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에서 발췌

재수룩에 붙여 1990년대 초, 국제적인 규모의 냉전이 끝나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했다. 당시에는 냉전이 끝나면서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 발췌한 글은, 1997년에 금호미술관 개인전을 앞두고 쓴 것이다. 1997년은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였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증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랜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도래한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당 합당’이라는 어정쩡한 정치 권력에 의한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기도 어려웠다. 남북 관계는 더욱 이상하게 흘러갔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했으며, 이후 급속도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첩보용 잠수함이 어망에 걸려 발각되었고, 1950년대를 방불케 하는 ‘공비 수색 작전’이 연일 보도되었다. 이것이 독일이 통일된 지 7년 만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도, 한국의 ‘민주화’도 남북 관계를 바꿔 놓지 못했고, 이 글을 썼던 시점으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전협정 체제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간첩 조작 사건은 물론, 정권 비판에 대한 종북몰이, 공안 기관의 정치 개입 등 냉전의 정치 행태는 오히려 부활하고 있다. 물론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에서 북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줄었다든가, 북이 핵무장을 공식화했다든가, 탈북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점 등은 분단 체제 변화에 희망을 주지 못한다.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데올로기 대립도, 전쟁의 피해도 세대교체와 더불어 실제 주민의 기억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념 대립이나 감정적인 혐오감도 생활 속의 현실감, 또는 ‘기의’를 잃어버리고 있다. 대신에 남북한의 갈등조차 점점 더 학교 교육이나 역사 서술과 같은 ‘기억술’에 의존하는 동시에 정치적 이권의 수단으로 형식화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체제를 둘러싼 남북의 ‘진정함’ 갈등은 스스로 그 내용을 고갈시킨다.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남북의 갈등은 이제 없지만 있는 것, 또는 현실화된 거짓말, 아마도 ‘시물레이션’ 문화로 정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립 자체가 속 빈 껍데기가 되었고, 그 껍데기가 사회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되었다.

《Art》에 오래 전의 글을 발췌해 신기로 한 것은, 전후 65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남북 관계에 아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물질적인 진보와 정보 환경의 변화, 경제 성장과 문화의 발달은 남북 관계의 거대한 정체(停滯)가 되돌려 줄 거대한 파피의 귀환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서로에 대한 서로의 의심, 홉스의 유명한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의심’이다.

의심은 언제나 상대의 정체를 그 상대가 스스로 주장하는 방식대로 보기를 기피하는 부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야 할 필요가 생긴다. 주체들의 상호적인 의심 속에서, 주체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숨겨야만 의심받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영화 〈괴물〉의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것처럼, 정확히 말해서 너의 의심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의 너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이다. 인물들은 의심을 의심한다. 따라서 의심 관계의 강렬함은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표명될 수 없다는 점만이 서로에게 투명하다는 것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 이래의 ‘복제성 괴물’ 영화들은 미소 냉전이 설계한 사회심리 속에서 만들어졌다. 괴물과 사람이 혐의에서 정체로 막 진화되려는 이 숨 막히는 장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강렬한 알레고리가 아닐 수 없다. 결코 자수하지 않는 분열증식성 외계 생물은, 일종의 과학적 혈액 실험과 전기고문이 혼성된 방법을 통해 정체가 밝혀지고, 격리되고, 전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연구의 대상이 된다. 괴물도 괴물이지만, 말 그대로 연좌(連坐)된 사람들 역시 적어도 최후의 판결 이전까지는 괴물과 함께 묶여 있어야만 했다. 심지어 그들 스스로도 인간인지 괴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 중 누가 괴물이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보았자 그것은 불고지(不告知)의 혐의를 강화할 뿐이다.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대체’되는 장면들의 연속이므로, 그것은 인물들 사이와 인물들과 관객 사이에서 맺어지는 사실상 무한한 의혹의 순열을 유희하고, 의혹의 상태를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알맞은 매체일 것이다. 복제성 괴물 영화 모두에서, 플롯이란 영화의 시간 속에서 망각과 기억이라는 공들로 곡예를 펼치는 기억의 기술이다. 1950년대의 또 다른 고전 〈신체강탈자의 침입(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의 인물들이 화면 밖의 시공간 어디선가에서 괴물로 변하듯이, 우리가 그들을 못 보는 사이에, 즉 우리가 눈앞에서 전개되는 다른 사진이나 인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이에 그밖의 것들은 비밀스럽게건 아니건, 복제나 전염, 설득이나 매수, 사랑이나 죄의식 때문에 변한다. 놀라운 것은 영화 쪽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객 쪽이다. 극중 인물이 화면의 프레임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단 몇 분 안에 프레임 안으로 다시 돌아와도 우리는 그 인물을 이미 전의 그 인물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다녀 온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믿는 식으로 말이다.

극의 논리에 따르면, 괴물이라면 피에 가해진 열에 감응하여 세포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체를 드러낼 것이요, 인간이라면 아무 반응이 없는 이치로 신원이 조회되리라는 것이다. 이 씬(scene)의 독특한 매혹은 상황의 구조적으로 유다른 모순에 있다. 그것은 의심하고 있는 내용의 불확실성이, 그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다는 상황의 확실성과 기묘한 긴장을 이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 상호간의 의심이 최고조로 달해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그 의심의 내용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유언비어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의혹의 상태, 성원들 간의 의혹의 상대적인 관계만이 남게 된다.



기시감, 사진 수많은 '공비' 살해 사진 중에서 단연 현실 같은 환영이 국회에 출몰한 적이 있다. 1988년 12월 10일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가 열렸을 때 이해찬 의원은 이 사진을 광주에서 자행된 공수부대의 만행을 보여 주는 예로서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알려졌다고 피의원의 실수였다. 이것은 당시 《동아일보》 사진기자였던 윤석봉 씨가 1969년 6월 흑산도에서 찍은 간첩살해 기념사진이었다. 그것을 《월간중앙》에서 광주학살 사진으로 속아서 실었기 때문에 의원은 이를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다. 어쨌든 사진의 오인(誤認)은 이 사진이 갖는 눈부신 리얼리즘에 흑한 덕분이었다.

이 사진에는 6월의 햇살이 마련해 준 사진의 심도, 군인들이 포즈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 프로 사진가의 순간 포착 능력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자연주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60년대 말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다. 군인들의 체취가 느껴지고 함성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긴장과 공포의 시간이 끝났고 특진이나 포상휴가를 받으리라는 희망이 그들의 포즈와 얼굴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온다. 이 첫 번째 충격은 여느 잘 보관된 사진처럼, 이미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과, 시간을 정박시키고 있는 사진 현실과의 충돌이 매끈하게 봉합되어 있다는 데서 생겨난다.

사진에서 '공비' 시체를 오려 내면 이 사진은 그다지 굉장할 것이 없다. 이 사진에서 시체를 빼버리는 순간에 군인들은 역력없이 여느 축구 시합에서 이긴 완성한 병사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만용이, 정식이, 박군의 앨범 속에 간직될 행복의 기억/추억의 사진일 뿐이다. 그러므로 간첩 이미지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붙여 보았을 때 주검은 대단히 '유니크'한 전리품이기보다는 어떻게 생겼거나 상관 없을 트로피에 가깝다. 우리는 나쁜 군인들의 잔혹함이 아니라 '진짜로' 조금씩 악하고 착한, 결국 청춘의 순진성을 숨길 수 없는 어린 군인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속 간첩의 주검은 젊은 군인들의 순진성과 에너지를 돋보이게 하며, 바로 그 순간 사진을 보는 관객은 어떤 이론론의 뒷에 덜컥 걸려 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구체적인 역사로서의 분단 이미지라기보다는 생사를 상징하는 일종의 마크가 되어 육체에 새겨질 것이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이 홀로코스트 사진을 보고 말했듯이 이 사진은 인생을 '이 사진을 보기 전과 보고난 후로 나눈다.' 무수히 많은 리얼한 정보를 갖춘 사진적 세부들이 그 사진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일시에 초과하며, 따라서 언어적인 해석은 기껏해야 보채기나 칭얼거림에서 불과해진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순수한 디노테이션에 베인다. (복제성 괴물) 영화가 기억의 마술사였다면 (외상적) 사진은 기억의 칼잡이다.

사진은 의식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 가라앉아 있는 잠재된 기억을 흠집 내고, 변질시키며, 매번의 새로운 체험을 필터링하여 받아들이는, 다른 기억을 숙주로 번식하는 기억이 된다. 대뇌라는 기억의 '중앙전화국'에 혼선을 초래하며, 잡음을 놓고, 때로는 통신을 두절시키는 괴전화가 된다. 기억회로에 고장을 일으키면서, 같은 '멘탈' 이미지를 반복 생산하는 것이 곧 기시감일 것이다. 그것은 전쟁과 간첩살해와 광주학살을 뒤섞는다. 그리고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의 오인을

한층 더 리얼한 것으로 느끼게끔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거대한 걱정 나라이다. 앤디 워홀에게 도시가 교통사고를 반복해서 찍어 내는 '외상-이미지' 공장이었다면, 내게는 분단이야말로 '걱정-이미지'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다.

국방초현실주의, 박물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모든 것을 일관된 관점에서 교육하려는 전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혹은 화강암으로 된 육중한 하드커버와, 사진, 밀랍 인형, 실물 등으로 된 총천연색 도판, 또 간략하게 정제된 설명문 등을 갖추고 있는 전쟁에 관한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이다. 물론 도판이 많은 아동백과사전처럼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전시물)가 압도적인 부피를 차지한다. 그것은 전쟁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의 휴전 상태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인과론적이고 발생학적인 궤도를 펼쳐 놓은 전쟁도감인 셈이다.

디드로(Denis Diderot)의 백과전서는 크게 분석적인 도판과 종합적인 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에는 만물의 분류를 통해 명명하는, 사물들의 근친 관계나 공간적 범주를 보여 주는 도판들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그것들이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상태가 그려진 연사체적 도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쟁기념관의 계몽주의도 무기, 군복, 군 장비, 표식, 유품들의 분류와 명명,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전투 현장을 일화의 형식으로 종합해 준다는 면에서 같은 뼈대를 갖고 있다. 체계적 분류/일화적 종합으로 나뉜 전쟁기념관의 이러한 이분법은, 백과사전과는 달리 어떤 다른 근원적인 차이에 의해 보충되며 과장된다. 실제로 체계적 분류는 실물, 모형, 명칭, 기록, 사진이나 지도와 같은 '객관적 정보'의 매체들을 취한다. 그러나 1차적 종합은 오히려 회화와 미니어처의 환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디오라마(dioramas)로 이루어져 있다. 장비 전시 쪽이 실증적인 과학기술의 세계라면, 디오라마들은 심금을 울리는 예술의 세계에 가깝다. 앞의 것이 고정되어 있는 사물들의 '계열성'을 반복한다면, 뒤의 것은 이야기가 응축된 '일회적 현존성'을 보여 준다. 앞의 것이 로고스이고 지식 엘리트를 원한다면, 뒤의 것은 파토스이고 대중을 원한다. 전자는 폭탄의 기계장치와 발명사를, 후자는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보여 준다. 전자가 군산복합체라면, 후자는 전쟁영화이고, 전자가 무기 물신주의라면, 후자는 예술 물신주의다.

전쟁기념관 디오라마는 잔혹한 전쟁일수록 볼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어느 정도 그 사실을 가린다. 이때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살상의 현장을 즐기는 사도-마조히즘적 관음증을 뜻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도-마조히즘의 심원함을 적정선에서 저지해야만 한다. '진짜 같은' 죽음의 이미지가 널리 있지만, 이를테면 1969년 흑산도 공비 살해와 같은 진정으로 외상적인 이미지를 불허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기에 의해 찢겨 나간 피아의 살점이라든가 가루가 된 뼈, 흥건히 고인 피 같은 디테일이 전쟁 자체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회의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눈가림은 실제 전쟁과 전쟁의 기억, 전쟁관과 기념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전쟁기념관'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딜레마와도 같다. '전쟁을 기념해? 어떻게?'

밤섬해적단, 붉은 깃발을 들어라!

/정 윤 석

이 글을 쓰기 전 내가 그들에 대해 처음 영화를 찍으려 결심했던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명칭하게도 딱히 잡히는 이유는 없었다. 단지 어렵פות이 기억나는 건 2010년 당시 나는 미술작가와 영화감독 사이에서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고, 2000년대 초반 ‘포스트-민중미술’ 작품들에 대해 큰 의문을 품고 있던 시기였다. 미술이 아름다운 이유는 너무나 잘 알겠고, 한편으론 한국의 정치적 미술의 존재에도 질식할 것 같았던 그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멸공 헬멧을 쓰고 경찰 재킷을 입은 한 밴드의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다.

북괴의 지령이 내려졌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라!
북괴의 지령이 내려졌다! 부정부패 척결하라!
북괴의 지령이 내려졌다! 구멍가게를 이용하라!
북괴의 지령이 내려졌다! 김대중을 추모하라!
-밤섬해적단 1집 <북괴의 지령> 중

총 42곡, 그러나 러닝타임은 52분밖에 안 되는 첫 데뷔앨범 <서울불바다>. 무언가 열심히 부르는데 소음만 들리고 그 소음에 내용이 있다며 공연 내내 친절히 가사를 설명하고 있는 밴드가 있다. “아무 곡이나 골라 들어라. 어차피 그 곡이 그 곡처럼 들릴 것”이라는 한 음악평론가의 말은 차치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음악적 자양분으로 삼는 그들의 가사는 신선했다. 그러나 공연 내내 소음으로 전달될 뿐이며 관객은 이내 귀를 막고 등 돌려 나가버리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 순간 이들의 공연 장면은 나에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정확히 비유하는 하나의 ‘풍경’처럼 보였고 이들의 음악을 영화로 다시 ‘번역’해 주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금부터 민주 열사 박종철을 트리뷰트하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찰시 침묵) “통” (베이스 소리)
(드럼스틱 소리) “탁” (침묵)

위의 상황은 영화로 제작하기 결심한 뒤 첫 촬영에 있었던 실제 공연 장면을 글로 다시 옮긴 것이다. 곡의 제목은 <‘턱’치니 ‘억’하고>, 러닝타임은 1초.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는 당신을 위해 바로 이어 다음 곡을 ‘읽어’ 보자.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1944년에 태어난 작곡가 김정일의 호는 예산이며 가수 김상아의 아버지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랑했어요, 못 잊을 건 정, 흙에 살리라 등이 있다!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1908년대 태어난 독립운동가 김정일의 호는 황파이며 평양점원상조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했다!
1935년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하셨고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밤섬해적단 1집 <김정일 만세> 중

밤섬해적단의 멤버 구성은 크게 ‘앞잡이’와 ‘배후세력’으로 나뉜다. 그 중 ‘배후세력’으로서 가사를 담당하는 권용만과의 첫 인터뷰에서 나는 ‘왜 북한이란 소재를 다루게 되었는지’ 질문했다. 그에 앞서 “북한/분단 문제는 현실을 바꾸려는 어떤 기도(企圖)도 곧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는 자동적인 협박”이었다는 서동진의 말을 상기시켜 보자. 그리고 다시 권용만의 대답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메탈의 전통—가장 사악한 것을 이야기한다—사탄 찬양—한국에서 가장 무섭고 사악한 것—북한

김수영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김정일 만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주어’이다. 만약 당신이 상상력을 발휘해 위 노래의 가사에 나와 있는 ‘김정일’을 전부 ‘박정희’로 바꿔 보면 어떨까. 아마 말이 될 것이다. 그럼 ‘전두환’은 어떨까. 역시 말이 된다. ‘이건희’는? 물론이다. 이처럼 밤섬해적단은 사악하고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권위를 높였던 메탈의 전통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언제나 말해 왔던, 동시에 두려워 했고 아직도 두려워 하는 북한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조롱한다.

엇그저께 해고당한 화장실 청소부
자신이 왜 짤렸나 곰곰이 생각하네
아무래도 내 자신이 너무 나약했구나
개열심히 번기 닦아 식판으로 써야지!
하면된다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면된다 정신으로 좌변기를 존나닦네!
하면된다 정신으로 좆빠지게 노력한다!
하면된다 정신으로 내자신을 개조한다!
-밤섬해적단 1집 <하면된다> 중



2011년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강정마을 공연에서부터 명동 철거민 지지 공연 <명동불바다>까지, 밤섬의 음악적 행보는 이 시대의 부조리와 마주하며 소외된 약자들을 응원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 강정마을 공연에서 “우리들이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권용만은 나에게 질문했고,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구호들은 자기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조심스레 고백한다. 이후 한미 FTA 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날, 여의도로 달려간 권용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시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집회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여의도 소음 대폭격> <뉴타운간첩파티> 등 다양한 공연에 밤섬해적단이 기획/참여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진다.

밤섬해적단은 ‘밤섬에서, 경제와 자본의 중심지인 여의도를 습격하자’는 뜻을 담은 밴드명이다. 2인조 그라인드 코어 밴드로 ‘노동조합’을 지향한다. 2010년 첫 공연에서 존 케이지의 〈4부 33조〉를 10초간 커버한 뒤 망신을 당했다. 2012년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분부스탁〉 페스티벌에서 〈김정일만만세〉를 불렀다가 보수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3년 박정근 국가보안법 공판 변호인 측 증거자료로 1집 앨범 〈서울불바다〉가 채택되었으며 드러머인 권용만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처럼 밤섬해적단은 클럽 공연과 방송 매체를 통해 데뷔하던 기존 인디씬의 관례를 깨고 철거농성장, 비정규직 연대모임 등 사회 속 다양한 공간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다. 2010년 홍대 두리반에서 열린 <서울 대혼란, 가난뱅이 다 모여>,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망을 이야기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절망콘서트> 등 그들이 함께했던 공연들은 이 시대 터부시되는 사회적 계급들을 적극적으로 호출하고 있다. 이렇듯 모두가 세상에 대해 무기력함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무기력함을 무기로 세상을 향해 일갈하는 밤섬의 음악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통과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체감에 가깝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대상화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지만, 밤섬해적단이 가진 노골적인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지지와 안티선언은 ‘88만원 세대’라는 미명 아래 20대를 관리해 왔던 기성세대의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해 낸다. 어렸을 적부터 베라를 뿌리고 다니고, 중학교 시절 전교조 선생님을 만나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는 사진가 박정근은 2000년 인터넷에서 만난 권용만, 장성건과 함께 ‘비싼트로피’라는 레이블을 결성, 밤섬해적단의 앨범 등을 제작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21일, 박정근은 “김정일 카섹스”, “위대한 장군님, 쭈쭈마 사주세요” 등과 같은 트윗들과 북한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의 트윗들을 (장난삼아) 리트윗한것을 빌미삼아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2013년 열린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받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일 카섹스” “한국에선 ‘농담’하면 잡혀간다”
-CNN, 박정근 구속 헤드라인

“김정일을 퇴치하자. 병균 퇴치, 암 퇴치”
-박정근(@seouldecadence)

박정근과의 첫 만남은 2011년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었던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박정근이 운영하는 사진관으로 찾아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때 압수됐던 물품 중에는 ‘박정근 사회자’라는 명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후 경찰은 ‘사회자’를 ‘사회주의자’의 약자로 보고 압수했다고 밝혔다. 박정근에게 가해졌던 무리한 경찰 조사는 MB정권 이후 경찰 진급을 실적제로 바꾸면서 생긴 예고된 폐단이다. 실제 민주화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공안 사건이나 시국사범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MB정부 들어 바뀐 정책 때문에 일선의 공안 경찰들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며 마구잡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뉴타운 간첩파티> 등 국보법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박정근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2년 1월 20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검사 : 피고인의 친구 중에 김정일이라는 친구가 있는가요?
박정근 : 그 사람은 밤섬해적단으로 활동하던 권용만의 친구입니다.
검사 : 피고인도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요?
박정근 :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검사 : 피고인이 ‘빠빠로데이’에 올린 트위터 글 중에 “김정일 장군님 빠빠로 주세요.”에서의 김정일은 북한의 김정일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의 친구인 김정일이 아닌가요?
박정근 :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북한의 김정일을 희화화한 것입니다.
검사 : (밤섬해적단 앨범을 보이며) 여기 나오는 것이 노래 가사인가요?
박정근 : 몇 개가 그렇습니다. ‘김정일 만세 만만세’라는 것들은 노래 가사입니다.
검사 : 그럼 노래 가사의 김정일은 친구의 친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박정근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진짜 김정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박정근 1심 공판 내용 중

법정르포작가로 활동 중인 황진미 평론가의 지적처럼 박정근 사건은 ‘NL’들이 보기엔 꽤 씩하고, ‘PD’가 보기엔 쪽 팔린, 그리고 ‘농담할게 없어서 저런 걸로 농담하냐’라는 일반인들의 무관심 속에 기획되고 완성되었다. 그러나 모두 다 알다시피 2012년 1심 유죄 판결 선고 이후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검찰의 센스 부족이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정근의 트윗 대부분을 “의도성이 없는 장난”이라고 판단했으나, 북한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한 것에 대해 “피고 스스로 분명한 이적 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북한 체제에 동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위와 같은 판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김정일 카섹스”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재판부가 ‘리트윗(re-tweet)’이라는 행위의 성격을 ‘동의’라는 의미로 자의적으로 판단 내리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상에서는 분명한 ‘이적 목적’을 가지고 선전물을 취득/반포했을 때 그 혐의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정근은 자신의 최후 변론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것과 북한을 좋아하는 것은 다르며,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에게 북한에 대해 알 권리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1960년대 ‘막걸리 보안법’에 이은 ‘트위터 보안법’의 등장은 현재 SNS의 국가 검열을 가능케 하는 단초가 된다. 실제로 박정근 구속 이후 항의 차원에서 ‘우리민족끼리’ 리트윗을 했던 나머지 네티즌 역시 국보법 수사 및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조치는 사람의 생각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성경이 진짜인 진짜 이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성경이 진짜인 진짜 이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다!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다!
- 밤섬해적단 1집 <성경이 진리이듯이> 중

이 글을 마치기에 앞서 그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직도 영화는 제작 중이고 그들의 삶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생각, 그 조롱하는 대상에 나 자신도 포함된다”라는 권용만의 말처럼, 분명한 것은 함께 했던 시간 내내 언제나 그들의 ‘삶’보다 ‘생각’들이 궁금했었다. 지난 3년간 내가 지켜본 밤섬해적단은 그 누구보다 인텔리적인 밴드였지만 언제나 아마추어리즘을 고집했었고, 그 어떤 예술보다 급진적이면서도 언제나 대부분 ‘안티선언’에 머물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남북한의 냉전적 대립이 이 사회의 폭력성과 맞물려 그들을 세상 밖으로 호출해 냈고 박정근의 “김정일 카섹스”, 밤섬해적단의 앨범 <서울불바다>는 그렇게 새 시대의 ‘붉은 깃발’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다 같이 외치며 남겨진 파편들의 새로운 조각을 맞춘다.

간첩에서 샤머니즘까지

/ 박 해 천

2013년, 합정동의 모 수도회 교육관 8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내란 예비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서울 주거지,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8월 30일, 《한국일보》는 이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혁명조직 회합의 녹취록을 입수해 그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모 수도회 교육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의원은 “전 세계에 최근 자료를 보니까 6kg 미만으로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3~4개밖에 안 된다”며 “이번에 (북한 3차 핵실험이)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라고 말했고, “전쟁을 준비하자”며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고 정치 군사적 준비 체계를 잘 갖추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문은 이 모임의 권역별 토론에서는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평택 유조창, 행정부의 전산망, 지하철과 철도 등의 타격 및 해킹 준비도 필요하다” “전시 상황에서 지도부를 보호해야 한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조국의 운명과 함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¹⁾

1) 《녹취록 단독 입수 이석기 “전쟁준비하자… 군사적 체계 잘 갖춰라”, 《한국일보》, 2013년 8월 30일

2013년, 《기억과 전망》의 67~108쪽 정치학자 임미리는 2013년 6월에 발간된 《기억과 전망》 여름호에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성남시 출신 정치인들의 구술에 바탕을 둔 이 논문은 당시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과 분당의 원흉으로 지목받았던 주사파 내부 경기동부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성남'이라는 뚜렷한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기동부의 집단적 특성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차별과 배제의 경험에 근간을 두는 것이었다. 1962년생 이석기를 포함해 1960년대 초반에 출생한 경기동부의 구성원들은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였다.²⁾

2) 임미리,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 28호), pp. 67~108

1991년, 강화도의 잠수정 서울대 법대 출신의 1963년생 김영환은 남파 간첩의 도움으로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정을 타고 월북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다. 남한으로 돌아온 뒤에는 북한에서 받은 40만 달러의 공작금으로 지하당 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이후 민혁명)을 만들었다. 민혁명 중앙위원회는 김영환과 하영옥 등 3인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중앙위원회는 남파 간첩을 통해 북한과 연결되었고 북쪽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남쪽에서는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취했다. 1997년,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낀 김영환은 오랜 고민 끝에 민혁당을 해체시켰다. 중앙위원이었던 하영옥은 김영환을 변절자라고 비난하며 '선'과 '돈'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³⁾ 그해 10월, 김영환은 최정남 부부 간첩 사건에 연루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리고 1999년 정부 당국에 전향 의사를 타진한 후 그해 7월 말에 귀국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김영환을 곧바로 구속했으나, 사상 전향을 고려해 공소 보류 조치로 10월 7일 석방했다. 같은 달 11일, 중앙 일간지들은 간첩 행위를 사죄하는 김영환의 반성문을 게재했다. 1999년에는 이석기 역시 수배되어 3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민혁당의 지도부급 조직원으로 경기남부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2013년의 한 인터뷰에서 김영환은 이석기에 대해 “전략적 사고가 떨어진다”고 평하며 경기동부가 “주사파 주류의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집단이었다”고 덧붙였다.

3) 〈심층 인터뷰: 북한서 민중봉기 일으키겠다. 내 방식 주체사상 포기 안해〉, 《신동아》, 2012년 9월호.

1988년, 사당동의 아파트 2013년 9월초, 정부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수 월간지의 어느 기자는 이 서류에 게재된 이의원의 자택 주소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D 아파트 9동 130X호. 그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난 대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이전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선 〈안철수·이석기의 우연한 인연?〉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⁴⁾ 이 기자가 주의 깊게 눈여겨봤다면 독자들이 좀 더 흥미를 느꼈을 법한 대목은 안의원과 이의원이 동갑내기였다는 사실이었다. 안의원이 이 아파트에 입주한 것은 1988년 12월이었다. 당시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안의원은 아파트 입주권을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속칭 ‘딱지’로 불리던 입주권의 당시 시세는 2천8백~3천만 원 선이었다. 안의원은 이곳에서 4년 동안 거주하다가 1993년에 어머니 명의의 역삼동 아파트로 이주했다. 이 아파트는 안의원의 어머니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양 받은 것으로, 구입 시기는 사당동 아파트와 동일했다. 안의원이 사당동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2000년이었다. 당시 실제 매매 가격은 2억 2천2백만 원이었고 국세청의 기준 시가는 1억 5천만 원 선이었으나, 구청에 신고한 계약서 상 가격은 7천만 원이었다. 한편 이의원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2008년이었다. 안의원이 이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였다.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6억 원대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아파트가 들어선 사당동 일대는 ‘달동네’라고 불리던 도시 빈민의 대표적인 거주 지역이었고, 또한 1980년대 후반 재개발이 시작되자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었다. 당시 서울 전역의 달동네를 대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과 88서울올림픽 준비 도시 미화 사업이 결합된 결과였다.

4) 《기자수첩》 안철수·이석기의 우연한 인연?, 《월간 조선》, 2013년 10월호



1987년, 안기부의 고문실 김영환은 하영욱 등과 함께 안기부에 체포되어 47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1986년, ‘빛의 제국’ 이해 봄, 김영환은 구국학생연맹을 결성하고 전국 대학가로 주체사상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작성한 《강철서신》이라는 팸플릿은 중요한 기폭제 구실을 했다. 특히 〈미제의 스파이 박헌영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은 학생 운동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흥미롭게도 소설 《빛의 제국》의 주인공인 남과 간첩 기영이 연세대 수학과에 입학한 것도 바로 그해였다. 기영은 그해 6월에 주사파 계열의 사회과학 동아리에 가입하고, 이후 선배의 권유로 지하 그룹에 들어간다. 기영과 그 동료들은 “공식적인 기구인 학생회나 동아리에서 활동하지만 밤에는 학습을 담당한 세포와 따로 만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해 공부한다. 기영이 보기에, “고작해야 스물두세 살인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주체사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금기를 위반하는데서 비롯된 쾌감 때문이었다. 한편, 지하 그룹의 동료 한 명은 기영에게 혁명의 그날이 올까봐 두렵다고 고백한다. 그는 “책상도 없이 온 가족이 공유하는 단칸방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깨를 맞대고 함께 살아온” 처지이지만, 막상 “미제를 축출하고 독재정권을 타도”한 이후의 세상이 두렵다고 말한다. 왜냐면 그 세계에서라면 “골방에 틀어박혀 포르노를 보거나 이어폰으로 이글스를 듣거나 잔혹한 일본 만화도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혁명 이후의 ‘지루한’ 세상을 미리 근심하고 있었다.”⁵⁾

5) 김영하, 《빛의 제국》, 문학동네, 2006, pp. 190~197

1973년, 동양 최초의 오순절대회 “제10차 기독교 오순절 세계대회가 십팔일 저녁 7시 동양에서 처음으로 서울효창운동장에서 미국 영국 등 삼십육 개국 대표 이천여 명과 국내 신도 이만오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오는 23일까지 거행될 이번 대회는 오전에는 여의도순복음중앙교회에서, 오후에는 효창운동장에서 집회를 갖는다. 오순절 대회가 열리는 여의도에 신축된 순복음중앙교회는 육천팔백 석의 대예배실, 육백 석의 예루살렘 성전, 삼백 석의 베들레헴 성전, 8개 교실의 교회 학교 등 일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볼 수 있는 단일 건물로는 동양 최대의 교회였다. 1970년 4월 신도들의 성금 팔억사천만원으로 착공, 1973년 8월 19일에 준공되었다.”⁶⁾ 김진호 목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 한국 개신교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시 빈민으로 편입한 이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선교 활동. 둘째, 대규모 부흥회를 매개로 한 중산층의 광범위한 개종. 셋째, 현대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교회를 이해한 청소년 집단의 유입. 순복음교회는 시기에 따라 위의 세 가지 성장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대형 교회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특히 여의도로의 이전은 신도의 범위를

변두리의 도시 빈민에서 서울 전 지역의 중산층으로 확대 재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병 치료와 방언 등 이른바 ‘신유 체험’이 이 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기폭제 구실을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부터 은사 능력을 지닌 부흥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개최해 평신도들에게 기적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순복음교회는 이런 은사 현상을 적극 활용해 “한국 개신교 대부분이 열광하는 신앙 양식으로 전환시킨 주역”이었다.⁷⁾

6) 〈오순절대회, 동양최초 한국서 개막〉, 《동아일보》, 1973년 9월 19일

7) 김진호, 《시민 K, 교회를 나가다》, 현암사, 2012, pp. 100~109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빛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참 대결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향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같이 기고만장합디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파닥 바뀌져버립디다. 삼륜차 한 대가 어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데몰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름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맹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디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디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걸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쳐옵디다.”⁸⁾ 광주 대단지가 조성되던 시점의 서울시장은 김현옥, 서울 부시장은 차일석이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의 책임을 지고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현옥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후 내무부 장관으로 부임했다.

8)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pp. 181~182

1968년, 여의도의 교회 1966년,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서울시의 행정 부시장으로 부임한 차일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의 부탁으로 조용기 목사를 만났다. 당시 순복음교회는 서대문에 위치했고, 가난한 신도들이 주축이었다.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에 다녔던 차부시장은 장로교회의 “단정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순복음교회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2년 뒤, 여의도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자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가 국회의사당의 맞은편 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차부시장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조용기 목사”에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고 교회 이전을 권유했다. 당시만 해도 순복음교회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큰소리로 찬송하고 시끄럽게 예배 드리며 “병을 고쳐 달라고 빌며 방언을 한다”고 알려진 데다, 주류

교단에서 이단 취급을 받고 있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차부시장은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한편, 조목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애초부터 여의도의 신시가지에 교회를 건설하기를 원했고, 간절한 금식 기도 끝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차부시장의 어머니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⁹⁾

9) 차일석, 《영원한 꿈, 서울을 위한 증언》, 동서문화사, 2005, pp. 245~251

1950년대 중반, 서울의 판자촌 소년 A군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해 집마저 빼앗긴 상태다. A군의 가족은 셋방살이를 전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 변두리 빈민촌에 허술한 외양의 판잣집을 장만한다. A군은 이 동네의 사람들 상당수가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어느 놈 하나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는 식의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그들의 호전성과 신경질은 아주 사소한 이해관계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폭발되곤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A군의 가족이 동네 분위기에 적응할 만해지자, 이번에는 철거반원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집이 헐린다는 것은 꼭 억울한 일만은 아니다.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흥분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불길에 휩싸여 훤히 타는 광경은 여러 번 목격했어도 두 눈을 뜬 채 지켜보는 앞에서 집채가 폭삭 주저앉는 꼴은 여태껏 구경을 못했다. 삼시간에 기둥이 나자빠지고 벽이 사방으로 떨어져나가고 그 위에 지붕이 털썩 올라타는 장면은 상상만으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손아귀에 쥐듯 그걸 더 좀 생생히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오밤중에 살그머니 이부자리를 빠져나와 집 둘레를 살살이 돌아보기도 했다.”¹⁰⁾

10) 윤홍길, <집>, 《황혼의 집》, 문학과지성사, 2007, pp. 45~47

1950년, 건지산 주변의 어느 농촌 마을 “아니다. 그날 저녁 일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를 해꼬지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안채에 불이 훤히고 밤중에 두런두런 얘기 소리가 들리걸래 대처나 무신 일인가 싶어서 찌뽀 구다본 것뿐이다. 일판이 그렇게 꺾 종 누가 알었냐. 내가 미쳤다고 그런 자리를 갔겼냐. 허기사 늙은이가 눈치코치도 없이 사둔네 일에 헤살을 논 게 잘못은 잘못이지. 잘현 일은 아니여. 잘현일은 아니지만서도, 그런다고 이 외할매만을 탓혀서는 못쓴다. 그날 저녁에 내가 아녘트라도 느게 삼춘은 오던 질을 되짚어서 떠날 사람이었어. 팔자를 그렇게 타고난 거여.”¹¹⁾

11) 윤홍길, <장마>, 《황혼의 집》, 문학과지성사, 2007, pp. 124~125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오순절 교회 도시학자 마이크 데이비스는 순복음교회가 속한 오순절파의 역사적 특성으로 “세계적인 종교로는 처음으로 현대의 도시 슬럼에서 태어나서 자란 종교”라는 점을 꼽는다. 그에 따르면, “감리교 초기의 열정과 미국 흑인의 영성”에 뿌리를 둔 오순절파는, 1906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여러 인종이 한데 모인 마라톤 기도회에서 출발했다. 이 기도회의 참여자들은 함께 ‘각성’하였고 성령의 강림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미국의 초기 오순절파는 “성령 세례, 기적에 의한 치유, 각종 은사,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자본과 노동의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믿음”에 근거했다. 이 교파는 1970년대 이후 제3세계의 도시화 흐름을 타고 전 세계를 무대로 교세를 확장하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념의 분파로 갈라졌다. 이를테면,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과테말라에서 미국이 후원하는 교회들은 독재와 억압의 거점역할을 해왔고, 몇몇 미국의 오순절파 신도는 귀족화되면서 교외 고급주택가의 근본주의 주류에 합류”했다. 반면 제3세계의 오순절파 교회는 여전히 초기의 정신을 아직도 간직한 채로, “미국 흑인의 전통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실향민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대도시 슬럼에서 오순절파는 “급격하고 외상적인 도시화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대응”으로서, 해방신학을 밀어낼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비공식 부문의 주변부 종교” “빈민 중의 빈민의 종교”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¹²⁾

12) 마이크 데이비스, <슬럼투성이 지구: 도시의 슬럼화와 비공식부문 프롤레타리아>, 《창작과비평》, 2004년 가을호(통권 125호), pp. 70~102